

#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불교가 내 안에



그 뒤로도 불교를 잘 알지 못했던 이창숙 박사, 다섯 살 된 큰 아이와 세 살 난 작은 아이를 가리키면서 정연희 작가에게 얘기를 건넸다. “재네들이 이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슬프다”고 정 작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뒷 때문에 슬픈 생각을 하느냐고 타이렀다. 그 말끝에 이창숙 박사는 “그 스님은 또 가서 봐어도 되요?” 물었다. “그럼. 가서 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봐도 되지. 기억하실테니까 찾아봐”라고 했다. “스님과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가 스님께 불교라는 낱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불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창숙 박사에게 법정 스님은 인로왕보살路王菩薩이었던 셈이다.

더욱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이창숙 박사가 법정 스님을 처음 뵈던 때가 1973년 여름으로 신문기자 생활 10년째였다. 그즈음 한국일보 젊은 기자들은 기자 신분보장이 되어야 언론자유를 외칠 수 있지. 신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유를 부르짖다가는 핍박을 받아 결국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각성이 일었다. 그래서 74년 12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74년 12월 10일인데, 이끈 이들은 저보다 6~7년 아래 젊은 기자들이었어요.” 젊은 기자들에게서 연 락이 왔다. 입에 거품을 물고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던 경력기자들이 막상 노조 이끌어 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쳤다면서 지부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목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다보니, 식사 대사가 생사대사인 만큼 피붙이 생계를 신경 써야 하는 가장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웅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적임자를 찾던 젊은 기자들은, 여자이면서 결혼하고 부군의 직장이 확실해서 직장을 잃더라도 생계를 이을 수 있다 싶은 이창숙 박사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다. “젊은 기자들이 뭔가 뜻 깊은 일을 하려는데 말이 없겠다고 하면 평생 이 사람들한테 마음 빚을 지고 살게 되겠구나. 싫었어요. 빛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목을 내놓자. 딱 그 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지부장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12월 10일, 한국일보노조를 만들어 이창숙 박사가 지부장을 맡고 서른 남짓한 사람이 발기인 회의를 열어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친 날. 회사 측은 이창숙 박사만 해고했다. “주동자들을 다 자르면 일이 커지지만, 여자하나 자르면 간단하잖아요. 수를 쓴 거지.” 12월 11일 0시 40분 인사부장이 광화문우체국으로 급히 달려가 12월 9일자로 이창숙을 이미 해고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부장은 지부결성한 날 이미 한국일보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10일 만들어진 노조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려는 꼼수였다.

해고 사유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1975년을 앞두고 여성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주관하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의’ 회장이자 유정회 국회의원이었던 이숙성이 추진회의가 만든 개정안을 회원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고쳐 국회에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뒤늦게 이를 안 회원들이 회장에게 항의하는 소

“저는 법정 스님을 뵈기 전까지는 절을 잘 몰랐어요. 절에 가 본 적이 없고 스님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법정 스님은 제가 가장 처음 만난 스님이예요. 급생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마중 나오잖아요. 나중에 일을 할 때 대개 마중 나온 사람과 비슷한 일을 고른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 누굴 만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행운이에요. 럭키해요. 럭키!”

두텁고 딱딱한 겉껍질을 죽을힘을 다해 밀어 올리며 파르라이 새순들이 돋는 사월 중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불교여성학 1호 박사 일화선(一化船) 이창숙 박사(72) 일성이었다. 광고를 봐도 그날은 민주항쟁 문을 여는 4·19이어서, 1974년 한국일보 노조 지부장을 맡아 부당하게 해고된 해직기자 이창숙 박사와 만남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

70년 대 초 이창숙 박사는 숙명여고 선배로 글을 잘 써서 인기가 많고, 남달리 손재주도 좋았던 소설가 정연희 작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 가끔

놀러가곤 했다. 어느 날 정 작가가 얇은베이 재봉틀 앞에 앉아 회색옷감을 잘라서 한복 같은 옷을 만들고 있었다. 법복이었다. 어디서 입는 옷이냐고 물었다. “절에 가서 입으려고 만든다고 해요. 어느 절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봉은사일 간대요.” 여름에 가서 한 석 달쯤 있을 거라고 했다. 놀러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그래도 그뿐이었는데.

## 생애 가장 처음 만난 스님

### 인로왕보살路王菩薩 법정

이창숙 박사가 한국일보기자였을 때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보는 조간신문이었다. 조간은 오전 12시까지 기사를 넘기면 오후 7시에 지방으로 가는 조판이 나왔다. 기자들은 조판을 보고 퇴근한다. 조판을 기다리던 1973년 초여름, 날씨가 눈부시게 좋아 말간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정연희 작가가 봉은사에 놀러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같이 근무하는 선

배한테 정연희 작가를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정연희씨 인기가 좋았거든요. 예쁘지 글 잘 쓰지.” 입이 벋글어지며 좋아하는 선배 화답에 오후 7시까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독선으로 달려가 배를 갈아타고 봉은사를 찾았다. 빼곡히 들이선 배 발을 지나자, 절 앞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하고 풀을 베고 있던 정연희 작가를 만났다. “자기가 절에 있으면서 놀러오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가운데 진짜 놀러 온 사람은 저 밖에 없었대요.”

반기워하며 손을 잡아 이끈 곳이 다래현이다. “앉아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저 쪽에 계속 보시더라고요. 벌써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법정 스님이셨어요.” 40대 초반 법정 스님 첫인상은 한여름에 풀 먹여 다려 놓은 삼베처럼 깔깔했다. 앉아있으려니 안에서 클래식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이창숙 박사는 ‘스님도 클래식음악을 들으시는구나’ 싶어 놀랐다. 그때 봉은사 돌레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다래현 뒷마루에 앉아있으면 지금 삼성역 네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언덕길이 훤히 눈에 들어왔다. “보니까 황도 언덕

이어서 ‘어우, 저기는 황도언덕이네요.’ 그랬더니 스님이 ‘조금 있으면 언덕 저쪽에서 황야의 포장마차가 넘어옵니다. 자알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듯하다며 깔깔깔 웃었어요.” 말씀을 전해 듣는 나그네 귀가에 존 웨인이 주연한 영화 <역마차> 주제가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스님하면 모두 근엄하고 말씀도 쉽게 하지 않을

## 다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 처럼 말씀하시는 줄 모를 것

것 같고 목소리 짝악 내려 깔고 ‘아 그렇습니까? 보살님’ 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던 이창숙 박사에게 이제껏 가졌던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씻겨 내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중 얘긴데 함께 다래현에 다니던 도반들끼리 깔깔거리면서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거다’ 그랬지.”

##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 고사의식집

가백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편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괄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할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중

등을 벌였는데 이를 당시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였던 이창숙 박사가 특종보도를 했다. 그러나 특종상은 커녕 도리어 '주간여성'으로 좌천한 이창숙 박사는 신문사 오랜 관행대로 며칠간 항의성 결근을 했다. 그런데 며칠 뒤 한국일보 노조가 태어나자 결근을 핑계 삼아 이미 해고했다고 역지를 썼다.

한국일보 노조가 결성되고 꼭 닷새 뒤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이어지고, 한국일보 노조 재판이 시작될 무렵인 이듬해 3월 18일 회사에서 농성투쟁을 하던 동아방송 프로듀서를 비롯한 130여 명이 구사대를 자칭한 괴한들에게 쫓겨나는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부당해고, 법정 다툼만 7년**

**버팀목은 식구와 법정 스님 뿐**

한국에서 맨 먼저 태어난 언론사 노조는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한국일보 노조는 '재판소 노조'로, 동아일보 노조는 '거리 노조'로 짧은 삶을 마쳤다.

빛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목을 내어놓았다. 그 뿐이었는데... 회사는 그 목을 붙들고 늘어졌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러 혐의를 조작했다. 특종은 회사 명예를 떨어뜨린 일로 뒤집었고, 직속상사는 무단결근, 무능, 좋지 않은 동료관계를 지닌 기자라고 몰아붙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취재원을 찾아가 사대질한 저질 기자라면서 마구 끌어내렸다. 당시 동아방송 라디오 제작부장이었던 부군 정인섭 선생에게도 끝없는 압력이 들어왔다. 동아방송 회장, 사장 그리고 직속상사가 수시로 불렀다. "도대체 자넨, 마누라한테 어디까지 양보하려고 그러냐?" 수없는 편지를 들었던 정인섭 선생. 속으로 '사장님, 회사와는 평생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누라하고 살아야지요.' 하고 부르짖으며 견뎠다. "맨 주먹뽀인 우리들은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재판소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다. 어디어디, 호소할 만한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온통 벽뿐이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그 가운데 힘이 되어 준 이들이 있었다. 동료기자 반대증언, 또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실무 간부 증언, 그리고 무료변론을 맡아준 변호인이 있었다. 이창숙 박사는 세상 정의가 다 사라지지 않았음에 고마워했다.

"제가 스님을 처음 뵈는 때가 73년 여름인데 74년 12월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알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때 스님은 운동권인사였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석헌 선생이나 사상에 발흥한 장준하 선생과 많은 활동을 하셨지요. 특히 스님계신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스님 영양으로 노조를 한 건 아니에요. 제 삶 현장에서 제 가치관에 따라 벌인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해석되고 나니까 그때 분위기로 제가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죠. 스님도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참이라, 누구보다도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감싸주셨어요. 그렇게 스님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너무나 딱 맞았어요. 정말. 그냥 여성신도와 스님 관계를 넘어서는 동지적 식이 있었어요."

지루하고 긴 법정싸움은 7년을 끌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자 노조원들 관심은 점차 식어만 갔다. 점



바람이었다. 스님은 나를 스쳐 지났던 바람이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 않은가. 어떤 인연 탓에 그 바람이 내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바람이 사진으로 찍히겠는가. 내가 찍은 것은 법정 스님이었지만 어쩌면 바로 나를 찍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람을 맞으며 내안의 변화를 법정 스님을 통해 나타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창숙 박사 역시 그랬을 것이다. 바람은 그와 함께 했고 오늘 그의 얼굴에 바람과의 인연이 나타나고 있다. 바람을 손에 쥘 수 없듯 그는 '그 바람'이 자신을 떠났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했다. 그래야 다른 바람, 다른 인연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박사와 사진장이는 그래도 감사한다. 그 바람이 몸을 감싸준 것에 대해.

점 외롭고 버거운 싸움이 되어갔다. 외롭기가 된 이창숙 박사는 결국 이 정권 아래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81년 7월 법원에 행정소송청구장단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7년을 넘게 끌던 싸움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서른네 살 먹은 여자가 7년을 싸우고 나니 마흔 줄에 접어들었다고요. 74년에 시작한 싸움이 81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을 다 쏟아 부었지만 결국 멈췄어요. 우리 법원은 법으로 보장받는 노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7년 세월. 그동안 제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니 버팀목은 결국 식구들과 법정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100% 제 편이었어요. 정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스님 판단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재판소 노조였던 한국일보 노조는 1981년, 걸리지도 않았던 간판을 내리고도 그로부터 6년 뒤인 1987년, 6·29를 맞고서야 간판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언론사 최초 노조 결성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록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이창숙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몇 사람이 모였다. 사건이 있는 지 서른 해를 훌쩍 넘긴 2005년. 비록 실패한 기록이지만 어차피 역사란 시행착오를 벌이면서 진화하는 게 아닌가. 관계자들은 그냥 묻어두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찾았다. 그런데 자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다들 자료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소의 자취를 발견하다**



어느 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방 안에 소파, 조명, 책상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마련해 두었다. 사람은 앞에 사설물이 모두 보였다. 그런데 같은 방이지만 개에게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과 소파는 보이지 않고 책상과 조명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파리의 입장이 되면 조명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각각의 주체에 따라 의미가 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 환(環)세계의 개념이라고 한다.

사람은 방에 놓인 모든 사물이 다 보였다고 하니 개나 파리의 경지에서 보면 뛰어난 영물임에 틀림없다. '본다'라고 할 경우 단순히 보이는 대상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육안으로 헤아려 보기에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은 눈의 작용이다. 범어로 눈(眼)에 해당되는 말은 다양하다. Cakshu는 '눈'이고 netra는 '안내지'의 의미가 있다. 정작 '본다'에 적절할 말은 dris 이다. 그저 눈 앞에 전개되는 사

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 특이하다. 즉 다른 것들에는 검은 소가 조련돼 순백의 소로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곱얇은 얇아버린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보고 잡아끌어서 마침내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 결국 공적(空寂)이 되고, 다시 애당초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차례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당(唐)대의 선의 특징을 이뤘던 평상심의 불도를 자각의 과정으로 대치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작용을 잘 다룬 곱얇은(심우도)가 가장 널리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 소가 선 수행과 관계가 있을까. 소가 인도나 중국에서 태고적부터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을 담당했고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동물인 까닭이다. 세존의 성이 고타마(Gotama)인데 Go는 '소'이고 tama는 '~을 가장 숭상하다', '~을 가장 좋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소토템을 씨족성으로 한 것이다. 소를 성물로 인정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함곡관에서 노자(老子)가 소를 타고 나오는 이미지는 소의 종교적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자기식의 언어구사는 큰 화를 부른다**

**자기 식견으로 예단말고 전체를 터득해야**

물을 시야에 들어오니까 본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마음으로 익히고, 이해해서 본다'던가 '순수직관을 통해 생각하고 발견하여 본다'는 말이다. 여기서 '철학'이란 의미의 darmana가 나왔다.

중생세계를 Saha loka라 한다. saha는 '참는다' 혹은 '함인'의 뜻이고 loka는 '세상'의 뜻이다.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참아야 하는 세계'란 말이다. 서로 간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오르고 싶은 마음이 그칠 줄 모르고 불타는 세계다. 행짜가 만연한 세계이기도 하다. 배거리잡이아 예사로운 일이 고 주변에서 지나치게 애발라 인심을 잃는 정도야 다반사이다. 그런가 하면 Vedy loka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vedy는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말이다. 성취된 세계에서 무엇을 더 갖고자 마음 쓸 일이 있겠는가. 이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기도 하다. 누구나 수행이란 정밀한 여과기를 탈 없이 통과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송고하고 지고한 세계다.

소의 자취를 발견하다(見跡)는 말은 심우도(十牛圖)에 나오는 말이다. 심우도는 심우도(尋牛圖)라고도 불린다. 심우도는 곽암(廓庵) 스님이 유달리 선수행을 소 찾는 것으로 묘사한 것

당(唐)대의 선원에서는 소를 사육했다. 선종이 율가(律家)에서 더부살이 하던 것을 떨치고 자급자족하는 수행집단으로 변혁될 때, 선농일치적 수행관에 입각해 선원에서 소를 사육했던 것이다.

견적(見跡)이란 수행에 있어서, 무엇인가 알듯말듯한 경지를 보인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알팍하게 아는 지식으로 전체인양 보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자기의 조그만 식견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려고도 한다. 스스로 전체를 터득하기 보다는 미리 예단하고 결론지어 주관적 해석을 내려버리기 쉽다. 자기식의 언어구사는 곧 진실을 왜곡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은 불안정한 지식을 빚는 말이다. 견적에서 가르침은 어슬픈 게침으로 세상을 망치는 사기꾼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모르면서 안다는 것도 무서운 사기이지만, 불안정한 지식으로 세상을 흑세무민하는 사이버 종교인을 경계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위선의 허물을 벗고 거저의 탐을 벗어던지고 진솔하게 인생을 논해보자. 이것이 '나'라고 떳떳이 얘기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동국대 석학과 교수

**2011년 이후,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

서울, 인천, 경기 지역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관세음보살명호CD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행사 기간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 관세음보살 명호 CD는 티베트 청장고원에서 수행하신 대 성취자 - 진푸터 선사께서 깊은 선정속에서 부르시는 관세음보살 명호입니다. 이 CD를 자주 듣거나 반복해서 염송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의 강한 가피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른 자연 재해와 사람으로 인한 재앙 등으로 전 인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재난을 피할 수 있고 많은 곤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방법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빌려서 이런 자연 재해와 인재를 피하고 행복한 인생을 얻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인류와 중생을 위해서 염불합시다. 관세음보살님의 빛이 전 세계를 비출 수 있도록 - 사람마다 모두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진푸터 선사께서 일본 대지진 이후 직접 선정속에서 부르신 염송CD를 뜻 있는 몇몇 불자님께서 법공양 하셨습니다.



사무실: 02)586-6185, 6186 연락처: 010-5376-8578, 010-8928-0537, 010-3507-1507

**佛經의 眞髓, 깨닫는 法을 일러준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의 바른 해설!!**

**반야심경의 올바른 해설**

● 金台龍 해설



金台龍 해설, 知文社 刊, 값 10,000원

지금까지 불교계의 애매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밝혀, 정확히 뜻을 헤아려 새길 수 있게 한, 혁명적인 해설본 출간!!

지문사 02)715-2305, FAX 718-9387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전화 02)716-5621, 팩스 716-5028